# 데스크시각

정 기 태

## ‘진실게임’의 규칙

오래 전 출간된 스웨덴 출신 아니카 투르(Annika Thor)의 소설 중 〈진실게임〉이란 게 있다. 작가는 이 책에서 고만고만한 또래집단의 성격을 ‘폭력적’이라고 규정한다. 나름대로의 규칙과 관습에 순응하지 않으면 배척당하게 되는 것이 그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스웨덴·영국·독일에서 장기 상영되는 등 한 때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그 여파인지는 모르나, 우리 사회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진실게임’이라는 게 자리를 잡았다. SBS는 매주 화요일 저녁 ‘유재석의 진실게임’을 300회 넘게 방영했다. 인터넷엔 가짜와 진짜를 찾는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출판가에선 〈정감록 역모 사건의 진실게임〉 〈부자아빠의 진실게임〉 등 유사 제목의 서적과 만화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 법의 논리는 ‘고무줄 잣대’

정치·사회·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도 이 낯선 용어는 단골로 등장했다. 북미(北美) 간에는 ‘위조지폐’ 공방(攻防)이 벌어졌고, 올해 초 ‘이명박 X 파일’이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다. 최근엔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김 회장이 구속된다고 ‘진실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구속·불구속은 사안의 핵심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과거 외화 밀반출 사건처럼 ‘며칠 있다가’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통념과 법의 논리 사이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미궁(迷宮)으로 빠질 것이다.

열린우리당 해체 문제를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 간 대립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젖먹이’ ‘잡동사니’ ‘얄팍한 잔머리’ ‘살모사 정치’…막말의 성찬(盛饌) 속에서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다. ‘비공개 오찬’에서 어떤 밀약이 오갔는지, 복당(復黨) 운운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친노(親盧)세력의 ‘영남 패권주의’란 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지역사회를 경악에 빠뜨린 전남도체육회 살인사건도 ‘진실게임’이 한창이다. 살인자의 굴레를 쓰게 된 가해자는 “도민체전 후 쫓아내겠다”는 말에 격분했다고 한다. 상임부회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후, 연간 69억여원의 예산 집행과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된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갈등구조의 다른 한 축에선 사무처장이 허구한 날 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며 본연의 업무를 방기(放棄)했다고 한다. 업무추진비는 한 치 의혹 없이 투명하게 썼으며, 체육회 운영도 규정대로 시행했다고 강변한다.

완전히 상반된 양측의 말 중 일치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점은 놀랍다. 두 사람 모두 “직원들에게 물어보라”고 한 대목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조직 내부에 극심한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혈연·학연·지연을 따져 “우리가 남이가?” 하며 건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애꿎은 직원들만 볼모로 잡힌 셈이다.

‘진실게임’의 본질은 어느 한쪽이 가짜라는데 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악(惡)이 선(善)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한다.

### 돈과 권력이 최후 승자

헌데, 과연 맞는 말일까? 지난 2000년 개봉됐던 영화 ‘진실게임’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연예인 살인사건을 종결하면서, 검사(안성기)는 “진실을 외면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겨둘 수는 없다”고 충고한다. 영화는 그러나 “게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군요. 진실게임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게임이에요”라는 다혜(하지원)의 마지막 대사가 나오는 순간, 반전(反轉)한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것이다.

‘진실게임’이 매번 우리 사회의 단골메뉴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추악한 권력 암투, 검은 돈으로 싸 발린 부정부패, 성 상납, 인사며 입찰 비리…. 이 모든 것들은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어둠의 장막 속으로 묻혀버린다. ‘진실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임 규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은펜칼럼

백 강 화

## 파 어웨이(Far away)

외국여행이라곤 호주에만 두 번째였다. 신혼여행 때는 관광만, 두 번째 여행은 좀 더 넓은 시야로 호주와 호주 문화에 대해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띠인 것은 바로 호주의 드넓은 목장지대와 그 안에 세워진 가족묘였다. 그리고 큰 공원이라면 어김없이 세워져 있는 개척기념비였다.

나도 왜 그런 것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는지는 아직도 잘 모른다. 아마 첫날 호텔에서 겪은 사건과도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우린 호텔방에서 기분 좋게 와인을 마시고 약간 소란스럽게 호주의 야경을 구경하려고 택시를 세웠다. 그런데 택시가 와서 멈추는 듯하다가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는 바로 앞에 있는 백인 부부에게로 획 가버리는 것이었다. 분명 우리가 먼저 잡았는데도 말이다. 그 택시운전사는 더구나 동양인이었다. 우리는 그야말로 외국에서 백인도 아닌 같은 혈족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한 것이다.

다음날 가이드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자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그러기에 너무 티나게 행동하니까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오해받지 않냐고 오히려 면박을 주었다. 억울했지만 타국인지라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날 점심을 먹는 데 동양인 인듯한 한 가족이 남루한 차림으로 와서는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걸 보면서 이번에도 가이드는 정말 창피하다고까지 했다. 그걸 보면서 ‘백호 주의’ 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같은 인종 간에 스스로 차별화 시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에 나갈 때 흔히 택시운전사, 가이드, 자영업 같은 서비스업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나간다. 그리고 기껏 정착한 곳이 한인들만 모여 사는 코리안 타운 같은 곳이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이민은 아닐 것이다. 이민이란 그 나라에 동화되어 그 나라 국민이 되려고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 나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호주의 백인 들은 숱한 역경을 딛고 그 대륙에 들어와 원주민들과 피를 흘리며 싸우면서 쉴새없이 땅을 개간하여 지금의 부국을 이룬 것이다. 바로 내가 본 가족묘에는 그 역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임승차하려는 외국인들과 자기들과의 차별성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직접은 보여주지 않는다. 누가 가도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그들 모습에서 ‘톨레랑스(양보)’의 선진 시민의식은 느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가까이 하려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한때 이민을 꿈꾸어 본 적도 있고 지금도 동경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민은 결코 나나 내 가족이 더 잘 살기 위해 가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버리면 영영 외국은 그림의 떡이니 차라리 내 나라에서 따뜻한 이웃 친지들과 어울려 사는 게 제일이라는 자족감이다.

〈주부·2005년 12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 기 고

신 창 섭

## 전남 농식품 해외마케팅으로 FTA 극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제조업 분야가 ‘맑음’이고 농업은 ‘흐림’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FTA 타결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남도에서도 농업부문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여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미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형소매점에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생산기반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고품질 농식품 수출 시장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FTA 극복을 위한 수출농식품 해외 마케팅 방안을 소개한다. 첫째, 신규업체 발굴 지원을 위한 농식품 해외시장 판촉사업이다. 해외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공략 목표로 우선 미국의 주류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다. 또 일본시장에서는 전남도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우리 농산물의 해외마케팅을 위해 전남도 농산물 해외 유기농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전남도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도록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사 비용 지원사업을 신규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 상류층 시장을 겨냥하여 상하이에서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우리 교민수가 증가하고 식문화가 비슷한 필리핀 시장을 필두로 중동의 두바이 및 EU지역의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해외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고 있다.

둘째,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 해외판매센터의 개설이다. 전남도 농식품과 가공식품이 해외에서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구매력 있는 해외 동포바이어를 우리도 ‘명예 수출에이전트’로 위촉하여 해외상설판매센터를 개설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6개국에 8명의 에이전트를 위촉,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의 수출선 확보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신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의 개최이다. 외국의 구매력 있는 우수바이어를 초청하여 전남도 친환경 고품질 농수식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늘리자는 것이다.

넷째, 각국의 소비자선호 품목 발굴을 위한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다. 국제유명박람회에 개별업체는 물론 단체로 도내 중소수출업체가 참가하여 세계 동종업체의 상품동향 및 정보를 파악하고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시장개척으로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하여 FTA를 극복하고 농업인의 평생직장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주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청 기업통상과장〉

## 농촌 온누리안 가정 배려한 자녀 양육비 지원 필요

둘째 시동생이 곡성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5년전에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 잘살고 있다.

아이 둘을 낳았는데 얼마전 시아버님 생신때 만났더니 동서의 배가 불룩해 물어보니 셋째 아이를 가졌다고 했다.

축하한다고 했더니 한술 더 떠 더듬거리는 말투로 “4명도 낳을 수 있어요”라고 말해 웃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와서 우리 농촌을 지켜주는것도 고마운데 또 자녀를 잘 낳아 기르고 있으니 너무나 예뻤다.

하지만 양육비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촌에서 아이 3명을 키울려면 농가 소득을 갖고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농촌의 국제결혼 가정에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가정과 달리 유난히 국제결혼 가정이 아이를 많이 낳는 추세라고 한다.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순애·광주시 서구 유촌동

## 커피 마시고… 음식 먹고… 한손 운전 위험천만

며칠전 시내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는 왼손에 커피가 담겨진 종이컵을 들고 조금씩 마시면서 오른손만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20여분 동안 한손엔 커피잔을 들고 한손으로만 운전하다보니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못하기 일쑤다. 바로 옆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승객 입장에서 어찌나 조마조마하고 신경이 쓰이던지 본능적으로 안전벨트를 꽉 잡게 되었다.

또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요란하게 울렸다. 순간 기사도 놀랐는지 움찔 하다가 손에 든 커피를 살짝 흘렸고 그것이 좀 뜨거웠는지 차를 길가에 세우고는 휴지로 닦으며 “시끄럽게 왜 울려대고 난리야?”라며 투덜댔다.

운전중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물을 먹으면서 한손만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 자신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전중 커피를 마시거나 햄버거, 빵, 아이스크림 등 각종 음식을 먹는 일은 삼가 해야 할것이다.

▲오정환·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 사 설

## 대형 유통업체 시장잠식 방관만 할 것인가

광주지역 상권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거의 몰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장면적 3천㎡이상인 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 5곳과 대형마트 11곳 등 16개에 달한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당 인구는 8만8천여명으로 부산 등 타 광역시의 11만4천~9만2천명에 비해 훨씬 적다. 여기에 앞으로 6~7개의 대형유통업체가 문을 열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머지않아 골목상권마저 내줘야 할 형편이다.

물론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은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입 증대 등 일부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진출은 자본의 역외유출과 함께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도·소매업소의 영업이익률이 1998년 9.7%에서 2004년 7.8%로 떨어지는 등 지역 상인들의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보다는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없는 경쟁력 강화책은 의미가 없다. 자금력과 유통기반이 열악한 지역 중소업체가 대형업체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 중소 유통업체의 영역 보호와 수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은 대형 점포 입지법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 점포입지 예고제, 출점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실시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있다. 유럽도 대형점포의 지방진출을 도시계획이나 지역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지역 상인들이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지역 상권의 고사위기는 유통업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 나아가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 취업포기 청년 1년 새 10만명 늘었다니

15~24세의 청년층 취업포기자가 415만4천명에 달했다고 한다. 취업할 의사가 없고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층 순수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 사이에 10만명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창 일을 해야 할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청년층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는 할 일 없이 노는 ‘백수’들이다. 청년들이 장기간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근로의욕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니트족이 늘어나면 가계에 부담이 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은 심각하다. 청년층의 전체 고용률에 대한 기여도는 지난 2002년 5.7% 이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2%에 그쳐 전년 4.8%보다 더 떨어졌다. 반면 중고령층(25~64세)과 노령층(65세 이상)의 기여도는 51.8%와 3.7%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취업포기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과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높은 기대수준 간 괴리 때문이라고 한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기대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데도 소위 3D 업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청년들이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사회가 정상일 수는 없다. 젊은이들이 일을 많이 해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청년들은 현실에 맞게 눈높이를 낮춰 ‘실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는 청년들이 애착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 6대 자질론

지난 7일 프랑스 대통령선거에 이어 미국, 한국 등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나라 안팎이 온통 대통령선거 열기에 휩싸여 있는 느낌이다.

미국 민주당내 경합에서 오바마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를 근소한 차로 제치는 등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 그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야권의 두 후보가 지지도 선두그룹을 형성하며 양 진영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건 전 총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이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두 주자를 포함해 과연 누가 여야의 유력 주자로 레이스를 펼치게 될지 현재로선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지도자가 갖춰야 할 이른바 ‘6대 자질론’을 피력해 관심이다. 원칙론에 입각한 의견 개진이지만, 각 대선주자들의 처신에 대한 전방위 비판이 함축돼 있는 데다 여권 후보 옹립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해석에서다.

노 대통령은 우선 “주위를 기웃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투신해야 한다”며 ‘뜸’만 들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들을 겨냥했다. 두번째로 “저울과 계산기일랑 미련없이 버려야 한다”며 정치가 ‘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소신과 정책’을 들었다. 그러면서 “왜 국가 비전을 이루는 데 적절한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고 해 정수장학회 문제를 겨냥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다.

또 ‘모시러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경선을 회피해선 안된다’ ‘개인적 정치이익만을 셈해서는 안된다’ 등의 원칙을 제시하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도 꼬집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인 듯하나 이는 대통령 후보의 자질론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담은 제2탄(?)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